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우리는 그저 시작했을 뿐입니다 [느헤미야 7]

설교자: 앤드류 드 브리스 (Andrew de Vries)

1 성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2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3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4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 이니라 5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계대로 계수하게 하시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계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6 옛적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놓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7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왜와 느훤과 바아나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8 바로스 자손이 이천 일백 칠십 이명이요 9 스바댜 자손이 삼백 칠십 이명이요 10 아라 자손이 육백 오십 이명이요 11 바합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이천 팔백 십 팔명이요 12 엘람 자손이 일천 이백 오십 사명이요 13 샷두 자손이 팔백 사십 오명이요 14 삭개 자손이 칠백 육십명이요 15 빈누이 자손이 육백 사십 팔명이요 16 브배 자손이 육백 이십 팔명이요 17 아스갓 자손이 이천 삼백 이십 이명이요 18 아도니감 자손이 육백 육십 칠명이요 19 비그왜 자손이 이천 육십 칠명이요 20 아딘 자손이 육백 오십 오명이요 21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구십 팔명이요 22 하숨 자손이 삼백 이십 팔명이요 23 베새 자손이 삼백 이십 사명이요 24 하립 자손이 일백 십 이명이요 25 기브온 사람이 구십 오명이요 26 베들레헬과 느도바 사람이 일백 팔십 팔명이요 27 아나돗 사람이 일백 이십 팔명이요 28 벤아스마웁 사람이 사십 이명이요 29 기랴트여아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사람이 칠백 사십 삼명이요 30 라마와 게바 사람이 육백 이십 일명이요 31 믹마스 사람이 일백 이십 이명이요 32 벤엘과 아이 사람이 일백 이십 삼명이요 33 기타 느보 사람이 오십 이명이요 34 기타 엘람 자손이 일천 이백 오십 사명이요 35 하림 자손이 삼백 이십 명이요 36 여리고 자손이 삼백 사십 오명이요 37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칠백 이십 일명이요 38 스나아 자손이 삼천 구백 삼십 명이었느니라 39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구백 칠십 삼명이요 40 임멜 자손이 일천 오십 이명이요 41 바스훌 자손이 일천 이백 사십 칠명이요 42 하림 자손이 일천 십 칠 명이었느니라 43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갓미엘 자손이 칠십 사명이요 44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일백 사십 팔명 이요 45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배 자손이 모두 일백 삼십 팔 명이었느니라 46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47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48 하가바 자손과 살매 자손과 49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50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51 갓삼 자손과 웃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52 베새 자손과 므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53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54 바슬릿 자손과 므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55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56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57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58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59 스바댜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60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 삼백 구십 이명이었느니라 61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롭과 앓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62 저희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도합이 육백 사십 이명이요 63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래 자손이니 바르실래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래의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64 이 사람들이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

지 못한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65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리와 동맹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66 온 회중의 합계가 사만 이천 삼백 육십명이요 67 그 외에 노비가 칠천 삼백 삼십 칠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이백 사십 오명이요 68 말이 칠백 삼십륙이요 노새가 이백 사십 오요 69 약대가 사백 삼십 오요 나귀가 육천 칠백 이십이였느니라 70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일천 다릭과 대접 오십과 제사장의 의복 오백 삼십 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71 또 어떤 족장들은 금 이만 다릭과 은 이천 이백 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72 그 나머지 백성은 금 이만 다릭과 은 이천 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육십 칠 벌을 드렸느니라 73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위대한 중국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말하길 하나님의 일에는 3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 하다는 것, 다음은 어렵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해내는 것. 느헤미야서는 거의 이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에게 허락을 받아내고 재건을 위해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힘겨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것을 포함해 모든 사방에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런 일들 후 성벽재건은 완성됩니다. 하지만 일은 사실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느헤미야서 두 번째 장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몇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 첫 번째, 우리는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지켜줄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본문의 첫 세절은 위험으로부터 도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명의 남자가 이 일을 맡도록 임명되었습니다. 그 둘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자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지키는 영적인 지도자는 그들이 다루는 모든 일에 신실해야하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한다면 다른 모든 두려움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할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은 아직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2, 두 번째, 우리는 사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결정할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번장의 주된 내용은 6절에서부터 65절에 나온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름들은 90년 전 쯤에 스룹바벨 차하로부터 나온 명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래된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기 위해선 적절한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61절과 63절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명단의 전체적인 요점은 예루살렘의 일원이 된 사람들은 올바른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구약 관점으로 본 하나님 왕국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성령님께서 새로운 영적 삶을 주셔야 합니다. 명단은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 사람들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명단에 적합한 사람들은 죄인들이었고 제외된 사람들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겸손하며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이며 그분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3, 세 번째, 우리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 넉넉히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본문 70절에서 73절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재건을 위한 넉넉한 후원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금은 오늘 날과 같이 귀한 금속이었습니다. 재건사역을 위해 모여진 금의 양은 엄청났습니다. 정 부관교가 낸 금의 양은 8.5kg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로부터 모여진 금의 양은 무려 170kg 이나 됐습니다. 오늘날 하나님나라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역시 후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원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 역시 아직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 성벽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사회 또한 재건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